

歷 史 紀 行

중화패권주의(中華霸權主義)-공존인가 지배인가?(하)

정헌택/자유기고가

당나라의 이민정책은 그러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함형원년(670년) 4월 고구려 추장 검모잠이 반란을 일으켜 고장의 외손자 안순승을 왕으로 옹립했다. 고종은 좌감문위 대장군 고간과 우령군 대장군 이근행을 파견해 토벌케 했다. 동시에 사평태상백, 양방을 파견해 병력을 접수케 했다.

만세통 원년(696년) 거란인 이진충이 영주를 차지하고 당군에 반기를 들었을때 영주의 속말갈 수령 대조영이 혼란을 틈타 수하를 거느리고 추격하는 당나라군을 격파했다.

거란과 동돌궐의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당나라는 그를 더 추격할 여력이 없었다. 대조영은 성력 원년(698년)동모산과 오루하 일대에서 진국을 건립했다. 그곳은 영주에서 동으로 2천리 떨어진곳으로 남쪽으로는 신라와 인접했다.

흩어졌던 많은 수의 고구려유민들이 대조영 밑으로 들어와 진국의 중요 구성원이 되었다. 고구려의 많은 귀족도 모두 진국의 통치기구에 들어가 망라되었다. 당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조영은 사절을 파견해 돌궐과 우호협정을 맺었다.

2. 백제의 패망

현정5년 (660년) 좌위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 행군대총관으로 임명하고 좌위장군 유백영, 우무위장군 풍사귀, 좌호위장군 방효태등을 통솔하고 신라병을 발동케 하여 백제를 토벌하게 했다. 정방은 의자, 용및 소왕 효연 추장58명을 생포하여 도성으로 보냈고 백제의 5개부와 37군 76만호를 평정했다. 이어 웅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등에 5개 도독부를 설치하고 추거장을 두어 관리토록 했다. 낭장 유인후에게 명하여 백제성을 수호케 하고 좌위낭장 왕문도를 웅진도독에 임명했다. 9월 정방이 포로를 처리했다. 문도가 제해에서 죽자 유인케로써 그를 대체했다. 이리하여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일거에 멸망되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소정방은 의자왕 및 태자 용, 왕자 연과 대신 및 장수급 88명과 백성 12,807명을 당나라의 장안으로 호송시켰다.

또 다른 기록에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백제왕 및 왕족, 신하등 93명, 백성 1만2천명을 데리고 사비성에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3. 신라와의 조공관계

매번 신라왕이 사망하면 당나라에 사절을 파견해 사망소식을 전했다. 당나라 황제는 또 조정에서 애도를 표시하는 외에 신라에 사절을 파견해 칙서를 전달하고 별세한 왕에 대한 관작을 주고, 비단, 명주 등을 선물했다. 동시에 신라의 새 국왕이 등극하면 반드시 관작과 책봉을 하는 칙서를 전했고 새 왕의 모친에게는 태비, 아내에게는 비라고 책봉을 해주었다. 그리고 새 왕에게 정절을 맹세했고, 대신들에게는 문극을 보내 주었으며 왕, 왕비, 태자에게도 귀중한 의복과 물품을 보내주었다. 신라는 당나라의 책봉을 아주 중요시하였다. 얼마나 중요시했는가 하면 아래와 같은 정도였다. 정원 16년(799년) 신라 소성왕 김준옹이 즉위했다. 당나라에서 사봉량중겸 어사중승 위단을 파견해 신라왕에게 '개부의동삼사 겸고태위 신라왕'이라는 책봉칙서를 전달하게 했다.

그런데 위단이 운주에 이르렀을때 김준옹이 사망했다. 당에서는 위단을 귀환하도록 했다. 원화3년 신라에서는 사절 김력기를 당나라로 파견했다. 그해7월 김력기가 상주서를 올렸다. "정원16년 책봉사절을 파견하여 김준옹에게 신라왕을 책봉하고 모친 신씨에게는 태비, 아내 숙씨에게는 왕비라 책봉했습니다. 책봉사절 위단은 중도에서 준옹이 사망한 소식을 접하고는 중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신이 귀국하게 되는데 책봉칙서를 다시 보내 주시기바랍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그의 요구를 들어 주어 책봉서를 가지고 귀국하게 했다.

신라는 계속해서 조공을 했다. 때로는 일년에 세차례나 조공하기도 했다. 조공사절과 세시 축하사절이 중국에 오면 당나라

황제는 내전에서 연회를 베풀어 회견하고 관작을 수여하고 의복과 물품을 하사했다. 중국에 왔던 사절이 귀국할때면 당나라 황제가 신라왕을 장려하고 칭찬하는 칙서와 양국 두나라의 우의를 칭송하는 칙서, 그리고 신라왕, 왕비, 대신들에게 주는 예물을 주었다.

4. 원나라의 내침과 고려인의 치욕

다루가치는 고려지방의 아문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간섭했다. 몽고 사절단은 도성의 관사에 체류하면서 판관량중 민회적이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는것을 구실로 매를 쳐 죽이기도 했다. 살리타이등 몽고장군과 원수들은 욕심이 끝이 없어 금은, 비단, 명주, 수달피, 말 등을 계속해서 강요했다. 또 동남동녀와 공장들을 공물로 바치게 했다.

고려는 이들의 요구에 응대하기 바빴고 서를 올려 매번 공물을 겨우겨우 준비했으나 이번에 요구하는 양이 더 많아 구할길이 없다고 애걸하곤 했다. 동남동녀는 왕족의 금지옥엽인데 이들이 번성하지 못한데다 국가가 작다보니 우리도 아내를 한명밖에 받아들이지 못하여 자식이 없거나 있다손 치더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 귀국에 보내왔사오니 이제 누가 왕위를 계승하여 조정의 각 직무를 담당하여 대국을 모시겠습니까? 하거나 우리나라의 공장은 원래 아주 적은데다 기근과 질병에 사망한 자가 많습니다. 또한 귀국의 병마가 크고 작은 성보를 지날 때 살해된 자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제는 전문 기술을 가진자가 없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편벽한 곳의 참상을 사려해 주는 것은..... 약자를 돌보아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간청하였다.

1254년(고종41년) 고려조정은 제신에게

오리는 제문에서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서술했다. 최근 몇 년간 죽고 약탈당한 사람과 가족은 실로 헤아릴수 없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부자간에 서로 돌볼수없게 되고 처자를 지킬수도 없게 되었다. 그중에서 올해는 항간에 기근이 들어 국가가 위급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역사서에서는 이 해를 또 이렇게 기록하였다. 몽고군에 포로로 간 사람이 남녀모두 20만6800이며 또한 몽고군에게 살육된자는 부지기수이다. 몽고군이 지나간 주와 현은 모두 잿더미로 되었다. 몽고군의 난이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처럼 심각한 적이 없었다. 또한 이런 기록도 있다. 병마와 혼란이 있스다음 해골은 전야에 널렸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망쳐서 경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셀수 없었다. 도병마사가 한되의 쌀을 주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지만 죽은 자가 부지기수다.

강제로 여성을 매입하던가 끝어갔다. 1274년 원 조정에서는 남송의 투항군인들에게 처자를 맞춰주려고 했다. 이에 사람을 시켜 전사 1640단을 들고 고려에 가서 강제로 여성을 사오게 했는데 남편이 없는 여성 140명을 골라오도록 했다. 고려는 결혼도감을 설치하여 전적으로 이일을 처리했다. 가을이 되어 어림잡 독녀 도적의 아내 승려의 아내등을 강제로 모집하여 그 숫자를 맞추었다. 이로써 원한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한 여성의 몸값은 전사 12필이었다. 그녀들을 남송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내를 얻은 남송군인들은 그 즉시 아내를 데리고 북상했다. 울음소리가 하늘을 진동했고 보는 사람마다 처참함을 금치 못했다. 1276년(충렬왕)에는 또 금은비단을 가지고 와서 투항한 군인 500명에게 아내를 구해주었다. 충렬왕은 5명의 과부처녀추고

별감정랑을 각도로 파견하여 여자를 찾도록 했다. 이밖에도 또 원조황실과 귀족들도 고려조정에 대해 처녀송출을 강요했다. 왕실과 귀족들의 첩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1275년 쿠빌라이는 고려에 조서를 보내 태조황제가 13국을 정벌했는데 그 국왕들이 미녀와 양마 보물을 헌납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고려도 부득불 처녀10명을 선발해 헌납했다. 이를 위해 한때 국내에서는 미녀를 구했다. 고려인 장인 경이 딸을 헌납했지만 아마 그는 그가 명문귀족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는 할수없이 다시 총랑 김원과 장군 조인경의 딸을 보냈다.

5. 명나라와 조선조와의 조공관계

이성계는 고려 권지국사라는 명의로 명에 진정서를 올려 왕요(공양왕)는 혼란하여 국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고 종친중에 왕위를 담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부득불 왕위에 추대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명조의 승인을 바란다고 썼다.

조선에서 조공하고 축하문을 올릴때면 역시 표문을 올렸다. 그런데 표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한문 문언과 전적에 대해 생소하면 표문에 명 태조가 꺼리고 싫어하는 글자가 끼어 있을수 있었다. 1394년 국호를 바꿔서 사은의 표를 올렸는데 그 글에는 경시하는 말이 있다. 고 조선을 힐책했다. 조선에서는 다시 표문을 올려 “소국은 외진곳에 있고 멀리떨어져 있어서 언어가 불통하고 견문도 좁고 문자도 거칠기 때문에 단지 사실만을 전달할뿐이다. 그리고 문안을 작성할 때 그 격식을 알지 못하여 착오를 빚어낸 것이지 고의로 경시하지 않았다.” 고 변호했다.

1396년 초에 명 태조는 또 조선에서 올린 홍무 29년 정조에 올리는 글에 대해 “경박하고 깔보는 것은 군사를 발동하여 평화를 파괴하는것”이며 책봉을 청구한 진정서는 “주왕의 일을 예로 든것은 실로 무례한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안작성자를 남경으로 압송하여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사절단 성원을 구속하고 조선에 알려 이들의 가족까지 압송해보내라고 했다. 문안작성자 정충등을 남경으로 압송해 오자 명 태조는 그들을 “고금을 조금통할뿐 대도를 전혀 모르며 작은피로 남을 희롱한다”고 질책한 다음 “도경에 남게 하여 낮은 관직을 주어 왕(이성계)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다. 정충은 명 태조가 하사한 의복을 입기를 거절했다가 투옥되었고 살해당했다.

처녀와 거세인(환관)을 강제로 요구했다. 원 시기 고려왕족의 처녀와 거세인을 골라 올리게 했다. 이로써 고려백성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명 성조도 원조의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성조는 즉위한후 조선왕실과 통혼할 의향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태종은 고려가 원조와 통혼한 결과 내정을 간섭받았던 사실을 교훈삼아 완곡하게 이를 거절했다. 그래도 성조는 조선여성을 소실로 삼으려고 했고 조선에서는 이에 대하여 저항할 힘이 없었다. 1408년 명나라는 고려에 성지를 떠었다.

“이 한평생에 좋은 여자를 얻게되는 것은 좋은 일이니 몇이라도 골라서 보내 줄지이다.” 이에 조선에서는 진헌색이란 기구를 설치하여 계집아이를 골랐고 시집가는 것을 금지했다. 비록 성지는 여성 “몇명을 고르라”고 말했지만 명조 사절의 감독하에

조선은 전국에서 처녀를 선발했다. “각도 순찰사에 명하여 처녀를 선발하되 대소 관원들과 시골 향신들이 밤낮으로 양반, 향교, 생도, 백성들의 집을 다니며 지켜보며 아름다운 여자는 모두 선발했다. 만약 동녀를 숨기거나 침을 놓거나 땀을 뜨든가 단발하거나 약을 부치는 방법으로 선발을 모면하려 한 것이 발각되면 법에 의해 처분된다. 최종적으로 5명의 처녀를 선발해 헌상했다. 그런데 이듬해 성지가 또 하달되었다. “작년에 선발해 보낸 여자들은 뚱뚱한 자는 뚱뚱하고 마른자는 말랐으며, 키가 작은 자는 작아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다시 선발해 줄것을 요구했다. 조선은 압박에 못 이켜 또다시 처녀들의 결혼을 금지시켰다. 이후 선종때까지 명조는 수차례나 조선에 처녀와 시종을 요구했으며, 주방시녀들까지도 요구했다. 여기에 뽀뽀하게 되면 “부모들이 울며 길을 막았다.” “그때 사람들은 이들이 가는 길을 죽으로 가는 길이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했다.”

명과 조선과의 관계가 안정된 후 양국간에는 빈번하게 사절단의 왕래가 유지됐다. 조선측에서는 일년에 조공을 4~5차례나 했다. 초기에는 고정된 조공진상이 일년에 세 차례로 정해졌다. 즉 정단(구정) 만수성절(명 황제생일), 황태자 천추절(생일)등 세 차례였다. 후에는 동지에도 조공사를 파견하게 했다. 상술한 고정적인 조공이에도 임시로 사절을 파견해 사은(책봉, 시상등에 대한 감사), 축하(황후책립, 태자책립)등의 유형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날짜가 없었기에 때로는 전자가 아직 귀환하지 않았는데도 후자가 도착했다.

6. 청나라와 조선중기 이후의 사대교린관계(1616~1910)

순치제는 칙서에 세공은 모시400필, 소목 200근, 차 100포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각종 직물도 2천필에서 1천필로, 여러색의 목면도 2만필에서 5천필로, 피륙도 1천400필에서 700필로, 거친 피륙도 7천필에서 2천필로, 순도도 20건에서 10건으로 경감한다고 규정했다. 기타는 과거의 예에 따라 헌납하라고 정했다. 신정과 동지, 공자탄생일에는 이전과 같이 조공을 진상하는데 길이 멀기 때문에 상기의 세공품을 신정때의 조공에 합해서 진상하도록 했다.

모든 조공은 조정사를 파견할 때 함께 조공하게 했던 것이다. 이것을 삼절년공사라 하는데 이는 가장 중요한 사절이었다. 이외에도 조선조는 그때그때 갖가지 사절을 파견했다. 주청사, 진주사, 사은사, 진위사, 진향사, 문안사, 뇌자가, 뇌주사, 뇌역사 등이 있었다. 사절단은 정사, 부사 각1명과 서장관 1명, 대통관 1명, 압물관 24명으로 구성되었다. 매 관원수마다 수행원 몇을 데려갈수 있었다. 이들 한 사절단은 대략 200명에서 300명에 이르렀다. 조선 사절단은 육로로 북경에 왔는데 서울에서 출발하여 평양, 의주, 압록강, 봉황성, 연산관, 심양, 광녕, 사하, 산해관, 통주를 경유하여 북경에 도착했다. 이는 편도로만 3천리나 되는 길이며 약 50일 내지 60일가량 걸렸다. 사절단의 중국 국내에서의 숙식은 청 정부에서 부담했다.

청 정부에 바치는 세폐공물은 조선 백성에 심각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청조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16회나 스스로 세폐공물을 경감시켜 주었다. 1644년에 세폐공물을 경감시켰고, 그후 1646년에 또 다시

경감시켜주었다. 1693년에는 세폐공물중 황금 100냥과 남청홍목금을 면제시켰다. 1711년에는 또 세폐공물중에서 백금 1000냥과 홍색 수달피 142장을 면제해 주었다. 1712년 강희제가 세폐명세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기를 했는데 광서제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1723년에는 조선 공물에서 피륙 800필, 수달피 100장, 청수피 300장, 종이 2천권을 경감했다. 1728년에는 조선 공물중에서 일반미, 찹쌀 각 30포를 경감하고 매년 찹쌀 40포를 바쳐 제사때 쓰기로 했다. 공물 명세품은 24종인데 그중 11종은 완전 면제했다. 황금 100냥, 백은 1천냥, 몰소뿔로 만든 궁면 200부, 포범가죽 100장, 청수피300장, 차1천포, 호숙10근, 소목 200근, 각종정세마포 400필, 마포1천400필, 순도20자루등이 망라되었다. 쌀1만포를 40포로 경감시켰다. 기타 다른항목도 모두 대폭으로 경감했다. 한국 학자 전해종의 통계에 따르면 1636년 조선의 세폐가치가 30만냥이었다. 1800년에는 약 8만냥 가량되었다. 즉 73%나 경감되었음을 알수 있다. 청조 초기를 제외하고 세폐와 방물에 대한 요구가 과거 그 어느때보다 경감되었다. 조공품을 강요한 것은 청 초기였다. 그렇게 때문에 조선의 부담은 원나라때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이 시기 명나라때 실행했던 처녀와 환관과 말을 조공하라는 요구가 없었다. 그리고 수리개도 청조초기에만 조공했다. 그리고 기타 감면도 적지 않았다.

끝으로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 우리 겨레가 당한 치욕은 중국대륙을 제외하고도 고려말부터 임진왜란(1592)때까지 日인에 의하여 수많은 한국의 양민이 포로로 잡혀가 그중에는 이탈리아 노예상인에게 팔려 인도고아, 이탈리아의 프로렌스, 로마

등으로 흘러갔습니 후일 밝혀졌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云云.....”, 또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좋은 말로 자기합리화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白衣의 민족이다.

역사상 한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또는 이민족을 포로로 잡아와 노예로 학대한 역사적 기록은 없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단군 이래 중국측 사료에 의하면 堯舜과 고조선때부터(BC2300) 중국의 침탈의 결과로 어질고도 어진 우리 배달겨레는 수많은 포로로 잡혀가 그들의 性的 희생물이 되거나 노예로 한많은 異國에서의 생을 마쳤다.

각설하고 요즘도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등에 가서 원로들(자칭 유림이라 칭하고 經典등 漢文 古典글줄이나 읽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과 담론을 할적에 자주 쓰이는 어휘중에 “東方禮義之國” 또는 청나라 이후 孔孟의 道統은 東(조선)으로 왔다(道東) 등등 지난날 우리조상들이 중국을 大國 또는 上國 또는 부모의 나라, 天君등으로 한없이 높게 숭앙하고 백성들을 가림 주구로 혈세를 짜내서 조공을 바치거나 꽃다운 처녀들을 공물로 상납해야 했던 지난날의 슬프고도 치욕스러운 역사는 아예 차치하고, 무조건 적으로 중국을 사대 내지 흠모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중국대륙은 청나라 이후의 白話文體를 간화체로 표기하여 사용중인데, 우리나라의 아직도 품질미달된 유림들은 중국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고루하고도 이미 퇴장된 중국의 고전글귀 몇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무슨 큰 학덕을 겸비한 선비인양 으

시된다.

연전에 영남의 원로 모선비가 남의 부탁을 받아 신도비문을 순 한문으로 찬하여 나에게 자랑겸 보여주기에 이를 중국에서 유학은 박사과정 漢族학생에게 보여주었더니(그 학생 역시 경전은 어느정도 수준에 달한자였다.) comment on 하여 가로되 그 비문의 한문문장은 중국인이 해독하기에 참으로 난해할뿐만 아니라, 오류가 많고, 한국인이 쓰는 Konglish가 있드시 한국인이 쓰는 한국한문은 그 문자의 원산지가 어딘지도 불명할정도로 한국식 한문표기가 많다고 하더라.

공맹의 원시유학은 원래 실천철학이며 위민사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서는 그 본질이 크게 변형되어 오로지 소수계층만의 벼슬을 얻기위한 수단, 백성들을 통치하거나 재산을 착취하기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

원래의 참된유학은 現世의 인간다운 윤리관계를 규율하는 사상이었다.

단재 신채호선생이 쓴 조선상고사에 “고기, 고사기등을 참고하면 조선문화의 원시수두의 발원이 거의 송화강가의 하얼빈부근인데, 하얼빈은 그 고대의 부여이다. 그러니 송화강은 조선족이 처음으로 근거한 ‘아라리’요, 하얼빈은 조선족이 최초로 개척한 野地, 곧 불ियो 그 이외의 모든 부여, 부리..... 등은 연대를 따라 차례로 개척된 야지 - 불이다.”

애당초 우리민족은 웅혼한 기상으로 만주대륙을 누비던 용맹한 기마민족이다.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이후 어쩌다가 반도에서 침거하여 겨우 기식하면서 이웃강대국(중국, 소련, 일본, 미국)의 눈치를 보며 살게되었는가. 끝